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는 성경공부 교재

# 로마서 영맥풀이

영적 파산과 법정적 무죄 선언

"인간의 도덕적 위선과 종교적 자만을 꺾고,  
영적 부도 상태에 놓인 죄인을 오직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언하시는 천국의 새 법안입니다."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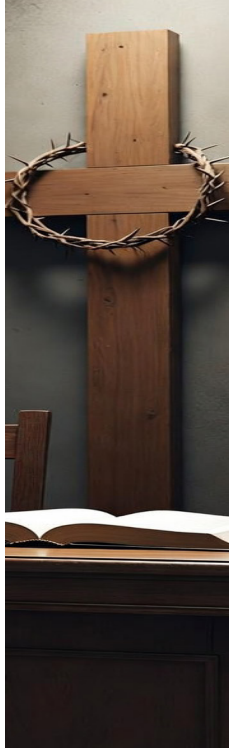
# 목 차 CONTENTS





|        |                     |
|--------|---------------------|
| 서 론    | 로마서 개요 _ 4          |
| 제 1 장  |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_ 14     |
| 제 2 장  | 인류의 영적 유기 선고 _ 26   |
| 제 3 장  | 예수님의 은혜 _ 38        |
| 제 4 장  |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_ 50 |
| 제 5 장  | 아담의 저주 파기 _ 62      |
| 제 6 장  | 죄의 법과의 합법적 이혼 _ 73  |
| 제 7 장  | 생명의 성령의 법 _ 86      |
| 제 8 장  | 토기장이와 진흙같은 나 _ 98   |
| 제 9 장  | 삶의 영적 리모델링 _ 109    |
| 제 10 장 | 하나님의 명문 가문 _ 121    |





서론

/

로마서

개요

# 서론 로마서 개요

## 도입내용

로마서는 온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중심을 향해 "참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밝힌 복음 선언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허물이나 막막한 현실 앞에서 "더는 안 될 거야", "결국 실패할 거야"라는 깊은 불안과 낙심에 짓눌리곤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묵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모든 정죄와 절망의 짐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회복시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귀한 진리를 품고, 삶과 가정을 낙심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소망으로 든든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롬 1:16).

### 1. 복음의 참된 의미

#### 가. 우리에게 임한 참된 기쁜 소식

- 1) 바울이 살던 시대에 '복음'(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널리 선포되던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가져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구원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시라는 놀라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롬 1:1-3).

## 나. 삶의 모든 절망과 얽매임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

- 1)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온전한 ‘능력’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롬 1:16). 이 능력의 원뜻은 굳건한 장애물도 단번에 허물어뜨릴 만큼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권능을 의미합니다.
- 2)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온전히 들어오면, 오랜 시간 우리 삶과 가정을 짓누르던 깊은 불안과 낙심, 갈등과 원망의 어두운 그늘은 말끔히 걷히고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 2. 로마서가 전하는 4가지 구원의 여정

### 가. 1단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정직한 인정 (1~3장)

- 1) 겉으로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내세우며 속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스스로를

[롬 1:1-3]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신 말씀처럼, 내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는 온전해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는 것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롬 3:10).

[롬 3:10]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 나. 2단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대신 갚아주신 구원의 은혜 (4~5장)

- 1) 죄값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친히 그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해방과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롬 3:24).
- 2) 옛 삶의 굴레와 절망적인 생각은 완전히 물러갔으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롬 5:17).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 다. 3단계: 옛 삶과의 온전한 결별과 새로운 생명 (6~8장)

- 1)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 성품이 죽고 무덤에 묻히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롬 6:4). 우리를 얹어매고 휘두르던 옛 죄의 지배력과는 이제 완전히 관계가 끝난 것입니다.

- 2)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롬 7:4). 이제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서 역사하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 정죄하거나 불안으로 움아낼 수 없습니다 (롬 8:1-2).

#### 라. 4단계: 하나님의 손에 삶을 맡겨드리는 거룩한 삶 (9~16장)

- 1) 진흙이 토기장이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쓰임에 맞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듯, 나의 교만한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 2)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롬 9:21).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롬 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롬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9: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니라

아” 우리의 몸과 일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도구로 올려드릴 때, 우리의 가정과 삶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참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집니다 (롬 12:1-2).

### 3.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참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 가. 죄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 1) 로마서에서 전하는 가장 감격스러운 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책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 2)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신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롬 4:8).

#### 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온전한 평강의 승리

- 1) 로마서의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

[롬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4:8]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선포하십니다 (롬 16:20).

- 2) 여기서 '상하게 하신다'는 원뜻은 성도를 낙심과 두려움으로 몰아가려는 악한 권세의 힘을 완전히 꺾어 무력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이 승리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과 가정을 맴돌던 모든 어두운 불안과 염려는 온전히 물러가게 됩니다.

### [스스로 돌아보기: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기]

- 삶의 막막한 형편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굳게 신뢰하나요? (롬 1:16)
- 과거의 절망과 죄책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마음 깊이 확신하나요? (롬 5:17)
-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삶의 두려움을 이겨낼 확신이 있나요? (롬 16:20)

### [오늘의 믿음 고백]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롬 5:17] 한 사람의 범 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오늘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보증이다!" (롬 8:1)
- "우리 삶을 짓누르던 모든 불안과 낙심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온전히 물러갔도다!" (롬 8:2)
-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흔드는 모든 어둠을 온전히 물리치시고 날마다 참된 승리와 평안을 더하실 것이다!" (롬 16:20)

### [파수꾼의 기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에 담긴 귀하고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 가정과 마음에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모든 옛 습관과 무기력한 생각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롬 5:14). "내 힘으로는 안 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며 좌절하던 연약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롬 3:27),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하게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마음 중심에 굳건히 붙드립니다 (롬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롬 5: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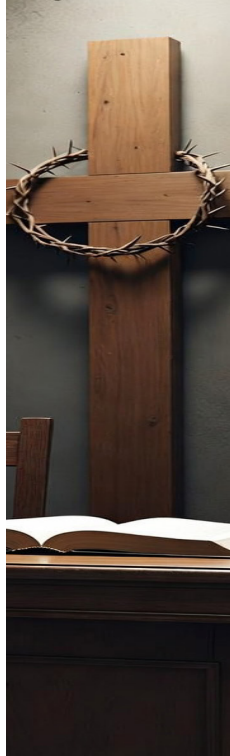
[롬 3:27]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3:24).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가정과 일상을 참된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롬 8:2). 한 사람의 진실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참된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승리를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제 1 장

/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 제1장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 도입내용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은 온 세상을 지배하던 막강한 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황제를 신격화하며 오직 그 권력만이 삶의 안정을 가져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힘과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담대히 증언합니다. 세상이 주는 압박과 무거운 짐은 우리를 영원히 얽매 수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삶의 모든 불안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롬 1:16).

#### 1.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 가.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 속한 삶의 확신

#### (1) 이전의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누리는 온전한 자유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롬 1:1).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3명 중 1명이 노예였을 정도로 노예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시대 법에 따르면 노예는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도 가질 수 없고, 오직 주인의 소유물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롬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 고대 사회의 관례에 따르면, 종에게 생기는 문제나 책임은 그를 소유한 주인이 온전히 책임지고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의 '둘로스'라고 고백한 것은, 이제 자신의 모든 삶과 주권이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책감은 더 이상 나를 얽매 수 없으며,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깊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 (2) 주님의 뜻을 전하는 신실한 사명자의 정체성

- 바울은 자신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롬 1:1). 고대 사회에서 이 단어는 국가나 왕의 중대한 뜻을 전하기 위해 전권을 위임받아 파견된 '공식 특사'를 뜻하는 무게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 바울은 세상의 화려한 권력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온 세상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긍지를 품었습니다. 우리 역시 눈앞의 어려운 환경에 낙심하기 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자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 나. 세상의 헛된 자량을 넘어서 참된 복음의 능력

### (1) 세상을 살리는 참된 기쁜 소식

- 바울이 전한 '복음'〈에반겔리온〉은 본래 로마 사회에서 황제의 즉위나 전쟁의 큰 승리를 알릴 때 사용되던 선포였습니다 (롬 1:1). 당시의 비문 기록을 보면 황제의 탄생과 통치가 세상의 기쁜 소식이라고 선전하곤 했습니다.
- 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만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참된 복음임을 로마의 중심에서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 (2) 삶의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

-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이라고 힘주어 선포합니다 (롬 1:16). 당시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삶의 어두운 장벽을 깨뜨리고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살아있는 힘을 의미했습니다.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 이 말씀은 복음이 마음에 심길 때마다 우리 삶을 짓누르던 깊은 불안과 낙심, 삶의 오랜 결핍과 아픔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2. 부활을 통해 확증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승리

### 가. 다윗의 혈통과 성령의 능력으로 입증된 주님의 주권

#### (1) 역사적 성취와 거룩한 능력으로 드러난 구원의 진리

- 바울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두 가지 분명한 진리로 증명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롬 1:3-4).

- 여기서 '육신으로는' <카타 사르카>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며, '성결의 영으로는' <카타 프뉴마>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사 온 세상의 참된 주님이심을 온 인류 앞에 명백히 드러내십니다.

[롬 1:3-4]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 (2)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의롭다 하심의 확증

- '인정되셨으니'라는 말의 원뜻은 분명하게 선을 굿거나 공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의 '선언하다' <호리조>입니다 (롬 1:4).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 인류 앞에 내리신 분명하고 최종적인 승리의 확증입니다.
- 인간을 얽매던 절망과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깨어졌습니다. 이 부활의 확실한 약속을 우리 삶에 모셔 들일 때,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어두운 염려와 두려움은 힘을 잃고 온전히 떠나가게 됩니다.

[롬 1: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 나.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복음의 풍성한 은혜

## (1)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는 구원의 문

-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며 복음의 참된 포용성을 이야기합니다 (롬 1:14). 당시 사람들은 문화적 배경이나 출신에 따라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그러나 바울은 세상이 그어놓은 신분과 배경의 장벽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었습니다. 과거의 환경이나 형편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롬 1:14]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 (2)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신령한 은혜의 나눔

-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그토록 만나고자 했던 이유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라는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롬 1:11).
- 이는 삶의 불안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의 신령한 은혜를 서로 나누어 가정을 굳

[롬 1:11]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건히 세우고 하나님의 평안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3. 삶의 적용과 고백: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 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세우는 믿음의 반석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은 성도의 삶을 이끄는 가장 안전한 이정표입니다 (롬 1:17).
-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나 눈앞의 곤란한 형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복음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때 삶의 모든 막막한 자리를 딛고 일어서는 참된 평안과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롬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 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담대한 신앙

-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하며,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당당하게 지켜냈습니다 (롬 1:16).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당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고 연약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요 능력임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눈물이 찾아올지라도, 복음의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 [스스로 돌아보기: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기]

- 내 삶의 무거운 짐이 아무리 크게 느껴질지라도, 내 모든 삶의 주권이 온전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돌로스> 확신하나요? (롬 1:1)
- 세상의 헛된 자랑과 불안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참된 능력<두나미스>을 온전히 신뢰하나요? (롬 1:16)
-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호리조>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삶의 든든한 평안이 됨을 인정하나요? (롬 1:4)

[롬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롬 1:4]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 [오늘의 믿음 고백]

- "내 모든 삶의 주권은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니, 모든 죄책감과 염려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롬 1:1)
- "우리 삶을 가로막던 모든 불안과 낙심의 짐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두나미스>으로 온전히 극복되었도다!" (롬 1:16)
- "주님께서 부활의 은혜로 삶의 온전한 안전선<호리조>을 그어주셨으니,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리라!" (롬 1:4)

## [파수꾼의 기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당당하게 선포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 삶을 짓누르는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십자가의 참된 승리를 바라봅니다 (롬 1:16). 우리 삶의 모든 주권과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던 모든 옛 생각과 불안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끔히 씻겨지게 하옵소서 (롬 1:1).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롬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롬 1:4]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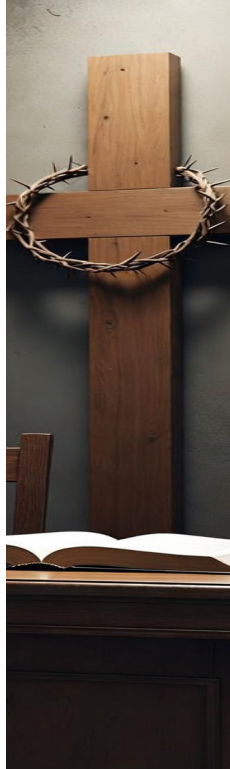
[롬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롬 1:4]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

오늘 우리 가정의 든든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롬 1:4). 눈앞의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사오니, 우리 가정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  
랑과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  
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  
도드립니다. 아멘.

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시니라





## 제 2 장

/

# 인류의 영적 유기 선고

## 제2장 인류의 영적 유기 선고

### 도입내용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며, 힘 있는 권력자만이 삶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세상의 힘에 주눅 들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걱정과 무거운 짐이 우리를 평생 짓누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힘을 의지할 때, 마음속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롬 1:16).

### 1. 참된 평안과 헛된 위선의 구별

#### 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과 세상 학문의 한계

##### (1) 기준을 잃어버린 마음의 허무함

- 바울은 먼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이 맞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짚어줍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롬 1:28).

- 여기서 '상실한 마음'의 원뜻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버려진 불량 주화'를 가리키는 <아도키모스>입니다.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참된 삶의 기준마저 무너져 내려, 바른길을 벗어나 그릇된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롬 1:26).

- 당시 로마 사회는 높은 수준의 철학과 윤리를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지식인들조차 도덕적 타락과 무절제한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겉치레 윤리만으로는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어두운 생각과 그릇된 습관을 온전히 바로잡을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2) 삶을 메마르게 만드는 그릇된 행실들

-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지는 상태<파라디도미>에 이르면, 삶의 자리에는 불의, 탐욕, 시기, 분쟁 등 수많은 허물과 상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롬 1:29-31).

[롬 1: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롬 1:26]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정욕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롬 1:29-31]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 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인생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열매들입니다.

## 나. 종교적인 우월감과 외적인 위선

### (1) 남을 쉽게 판단하는 교만한 태도

- 바울은 자신은 의로운 척하며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던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선언하십니다 (롬 2:1).
- 여기서 '판단하는' <호 크리논>이라는 말의 원뜻은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인 양 높은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오만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 (2)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온전한 변화

- 오랜 신앙생활이나 외적인 직분을 스스로의 훈장

[롬 2: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처럼 내세우는 이들에게, 바울은 외적인 모양만 갖추었다고 해서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롬 2:28).

[롬 2:28]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 진정한 삶의 변화는 외적인 종교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마음 중심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롬 2:29). 여기서 ‘마음’<카르디아>은 인격의 가장 깊은 중심을 뜻합니다. 겉치레와 형식적인 종교 습관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중심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참된 성결과 기쁨의 삶이 시작됩니다.

[롬 2: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 2. 모든 허물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 가.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판단

#### (1)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배경이나 겉모습, 외적인 체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기준을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

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명백하게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롬 2:11).

[롬 2:11] 이는 하나님께  
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  
지 아니하심이니라

- ‘외모로 취하심’ <프로소폴렙시아>의 원뜻은 고대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보고 사람  
을 대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쓴 그럴듯한 겉모습의 가면을 보시는 분  
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자리한 마음의 참된 중심을  
깊이 살피시는 분입니다.

## (2) 숨겨진 모든 것을 온전히 살피시는 심판

- 복음의 빛이 우리 삶에 온전히 비칠 때, 마음속 깊  
이 숨겨두었던 부끄러운 허물이 진실하게 드러나  
며 정죄와 불안에서 벗어나는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  
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  
시는 그날이라” 말씀하십니다 (롬 2:16). 내 힘과  
위선으로 허물을 감추려 애쓰던 헛된 노력을 멈  
추고, 십자가 앞에서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모든 정죄감과 불안에서 온전한 자유  
를 얻게 됩니다.

[롬 2:16] 곧 나의 복음  
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  
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  
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 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

### (1) 심판을 미루고 기다려주시는 참된 이유

-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경고하십니다 (롬 2:4). 삶에 당장 큰 징계나 환난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위선이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진실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롬 2: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 (2) 완고하게 굳어버린 마음의 돌덩이를 부수는 은혜

-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롬 2:5).
- ‘고집’의 원뜻은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버려 말씀이 전혀 통하지 않는 ‘돌덩이’를 뜻하는 <스클레로테

[롬 2:5]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스>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을 되찾는 길은, 이 굳어진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깨뜨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은혜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 3. 삶의 적용과 고백: 위선을 벗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 가. 마음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

- 우리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환경을 원망하던 비판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일입니다.
-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옛 삶의 습관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 자리에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모셔 들여야 합니다. 겉치레뿐인 종교적 형식을 벗어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 삶을 짓누르던 어두운 무기력감은 온전히 걷히게 됩니다.

#### 나.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정직함과 자유

-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선언하셨듯이 (롬 2:1), 하나님 앞에서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며 숨을 수 없습니다.

- 마음의 허물을 숨긴 채 그럴듯한 겉모습으로 살아 가려던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핑계를 멈추고 연약한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는 헛된 위선이 아닌 참된 평안과 진실한 신앙의 유산이 온전히 이어지게 됩니다.

### [스스로 돌아보기: 나의 영적 상태 점검]

- 내 삶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탕함이나, 은근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종교적 위선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나요? (롬 1:28, 롬 2:1)
- 하나님은 사람이 꾸며낸 외적인 겉모습이나 가면<프로소폴레시아>에 속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나요? (롬 2:11)
- 외적인 신앙생활의 틀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마음 중심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나요? (롬 2:29)

[롬 2: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롬 1: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롬 2: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롬 2:11]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롬 2: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 [오늘의 믿음 고백]

- "우리 삶을 흔들던 모든 위선과 남을 판단하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았도대!" (롬 2:1)
-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려 했던 옛 생각과 불안은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도대!" (롬 1:28)
- "겉모습에 얽매이던 신앙의 틀을 벗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마음의 참된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리라!" (롬 2:29)

## [파수꾼의 기도]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허물은 쉽게 판단하면서 정작 내 안의 교만과 은밀한 욕망은 모른 척하며 살았던 연약한 위선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롬 2:1).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방황하던 옛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롬 1:28).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롬 2:11) 오직 중심을 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위선의 가면을 벗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옵니다. 외적인 행위나 형식에 의지하던

[롬 2: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롬 1: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롬 2: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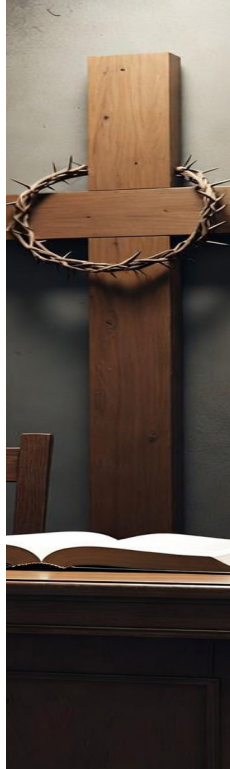
[롬 2: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롬 2:11]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태도를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성령의 참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롬 2:29). 그리하여 우리 가정 안에 겹치레가 아닌 진실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평안만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2: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 제 3 장

/

# 예수님의 은혜

## 제3장 예수님의 은혜

### 도입내용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써도, 내 힘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짚어줍니다. 내세우던 도덕심이나 신앙의 경력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설 수 없는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삶을 짓누르던 불안과 정죄감을 거두시고, 메마른 자리를 은혜와 평안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롬 3:23-24).에 담겨 있습니다 (롬 3:23-24).

### 1. 빛의 탕감

#### 가. 유죄 판결과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

##### (1) 핑계 댈 수 없는 하나님의 판결

-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

[롬 3:23-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을 하늘 법정 앞에 세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롬 3:19).

[롬 3: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 여기서 '모든 입을 막고'의 원뜻은 죄인이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입을 꼭 막아버린다는 의미의 '프라쓰'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운 환경이나 집안 형편을 핑계 대며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으며 우리 자신이 명백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2)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거울, 율법

-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바울은 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롬 3:20).
-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다짐만으로는 삶에 얹힌 어두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

[롬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울이 얼굴에 묻은 먼지를 보여줄 뿐 씻겨주지 못하는 것처럼, 법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 나.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의 은혜

### (1) 큰 값을 치르고 나를 구해내신 주님의 희생

-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힘을 잃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는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롬 3:21).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십니다(롬 3:24). 여기서 '구속'은 옛날 노예 시장에서 몸값을 대신 치르고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속량' <아폴뤼트로시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을 치러주신 순간, 우리를 묶어매던 모든 죄와 결박의 굴레는 완전히 풀려났습니다.

[롬 3:21]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 (2) 정죄를 은혜로 바꾸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 성경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증언합니다 (롬 3:25).
- 여기서 '화목제물'의 원어는 구약 성막 안 언약궤를 덮고 있던 뚜껑, 즉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속죄소' <hilasterion>를 뜻합니다. 일 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리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머물던 두려움과 진노를 거두시고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 2. 차별 없는 용서와 참된 공의의 완성

### 가. 모든 사람이 겪는 영적 결핍과 차별 없는 무죄 선언

#### (1)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버린 인간의 현실

- 바울은 우리의 삶과 가정이 왜 메마르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포하십니다 (롬 3:23).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여기서 '이르지 못하더니'는 화살이 과녁에 닿지 못하고 툭 떨어지거나, 가진 것이 완전히 바닥나 '파산한 상태' <후스테레오>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난 상태이기에, 늘 결핍과 불안,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 (2) 아무 조건 없이 내려주시는 은혜로운 무죄 선언

- 하나님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롬 3:26).
- '의롭다 하심'은 하늘 법정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법정적 칭의' <디카이오오>를 말합니다. 이 선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도레안>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짓누르던 과거의 모든 죄책감과 정죄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롬 3:24).

[롬 3: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 나.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 (1) 지나간 허물을 너그럽게 덮어주신 은혜

-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선포하십니다 (롬 3:25).
- '간과하심'은 죄를 못 본 척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까지 심판을 은혜로 '미루어 참아주셨다' <파레스시스>는 뜻입니다. 과거의 수많은 잘못과 부끄러운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 (2)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신 십자가

-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두실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 십자가 형벌을 맡기심으로 공의를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롬 3:26).

[롬 3: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 3. 삶의 적용과 고백: 내 자량을 내려놓고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으라

#### 가. 내 자량을 내려놓는 겸손한 믿음

- 성경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라고 선포합니다 (롬 3:27). 우리 삶에 임한 부정적인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 의로움이나 세상의 조건을 내세우던 교만한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는 일입니다.
-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원리’를 따를 때, 삶을 짓누르던 답답한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시작됩니다.

#### 나.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는 복음의 은혜

-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롬 3:29).
- 우리는 종종 집안 형편이나 지나간 상처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복음 안에는 그 어떤 차

[롬 3:27]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롬 3:29]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별도 없습니다 (롬 3:22). 이전의 환경이나 배경이 어떠했던 상관없이, 십자가 은혜의 자리인 속죄소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 우리의 가정과 삶은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는 복된 자리로 변화됩니다.

### [실전 점검: 나의 영적 상태 직면 체크리스트]

- 내 힘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나요? (롬 3:20)
- 내 삶의 모든 연약함과 묶인 짐을 다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대속 은혜<아폴뤼트로시스>를 신뢰하나요? (롬 3:24)
- 하나님이 내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신 '은혜의 속죄소 자리'<힐라스테리온>를 굳게 믿나요? (롬 3:25)

### [오늘의 큰소리 선포]

- "내 행위와 조건으로 인정받으려던 모든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롬 3:27)

[롬 3: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롬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롬 3:27]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신 십자가 사랑 덕분에 우리 가정을 짓누르던 모든 죄와 굴레는 온전히 풀려났습니다!" (롬 3:24)
- "우리 집은 더 이상 불안과 원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된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롬 3:25)

### [파수꾼의 기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 의로움이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롬 3:23). 이 시간 제 사랑과 핑계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속량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롬 3:24). 지난날의 수많은 허물을 오래 참으심으로 넘겨주시고 (롬 3:25),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십자가 화목제물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불안과 죄책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롬 3:26). 우리 가정을 누르던 어두운 무력감은 걷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와 사랑, 평안의 은혜만이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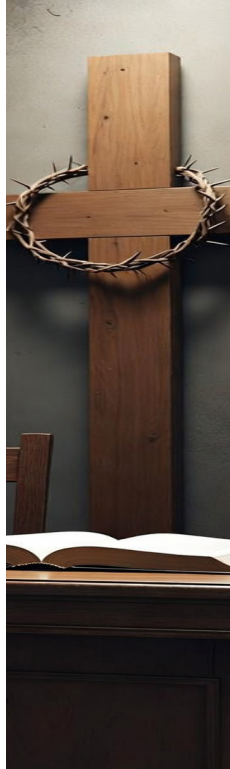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더니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롬 3: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 제 4 장

/

#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 제4장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 도입내용

집안의 어려운 형편이나 짝 막힌 현실을 마주하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기가 꺾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착한 행실이나 자격, 혹은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로 값없이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백 세나 되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처럼,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약속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 삶의 닫힌 문도 은혜 안에서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롬 4:3, 롬 4:19).

#### 1. 내 노력을 내려놓고 은혜를 받아들이다

#### 가. 율법의 의식 이전의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

##### (1) 대가가 아닌 거저 주신 선물로 받은 믿음

- 바울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자랑하던 종교적 의식과 행위를 내려놓게 하고자 아브라함의 역사적 사실을 전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

[롬 4: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롬 4:19] 저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롬 4:3).

[롬 4: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되었느니라

- ‘의로 여기신바’의 원뜻은 장부에 ‘정식으로 값을 기록해 놓다’라는 뜻의 <로기조마이>입니다. 일하고 받는 돈은 당연한 대가이지만, 하나님은 부족함투성이인 죄인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처럼 은혜로 의롭다 인정받는 순간, 우리는 죄책감에 짓눌려 살던 처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진짜 자녀가 됩니다.

## (2) 죄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완전한 용서

- 바울은 다윗 왕의 고백을 통해 모든 죄와 저주가 멈추는 은혜의 원리를 증언합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롬 4:7-8).
-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네 지난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완전히 덮어주시는 은혜를 뜻

[롬 4:7-8]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합니다. 진정으로 복된 가정은 겉보기에 잘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지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마음의 짐을 깨끗하게 덜어주시는 용서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 나. 없는 것을 부르시는 창조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

### (1)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

-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나 눈앞의 절망적인 상황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선포하십니다 (롬 4:17).

[롬 4:17]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의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 '하나님 앞에서의' 원뜻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을 뜻하는 <카테넌타>입니다. 아브라함이 늙고 기운 빠진 자기 몸을 보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정에 나타났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이루실 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모든 삶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 (2)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확신

-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몸은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말씀하십니다 (롬 4:19).
-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선포하십니다 (롬 4:20-21). ‘확신하였으니’의 원뜻은 ‘바람을 듬뿍 받은 돛단배처럼 마음에 의심 없이 확신으로 가득 찬 상태’를 뜻하는 <플레로포레오>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메말라 보어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메마른 우리 가정에 다시 생기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롬 4:19] 제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롬 4:20-21]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 2.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전한 구원

### 가. 외적인 표시 이전의 약속과 참된 상속자의 복

#### (1) 겉모습의 표시를 하기 전 확정된 무죄 판결

-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히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시점이 그 어떤 종교 예식을 치르기 한 참 전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선포하십니다(롬 4:11).
- 이는 종교적인 배경이나 자격이 없는 그 누구라도 믿음만 있으면 차별 없이 의인으로 품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거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약속을 똑같이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롬 4:11]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2) 은혜로 기업을 이어받는 믿음의 원리

-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명시하십니다(롬 4:13).
-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디아 디카이오쉬네스 피스테오스> 은혜는 인간의 부족한 자격이나 조건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내 힘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롬 4: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복을 받아내려는 사람은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  
기 어렵지만 (롬 4:14),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믿  
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어받는 참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롬  
4:16).

## 나.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주는 온전한 승리

### (1)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 수님

-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는 옛날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의로 여기  
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  
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선포하  
십니다 (롬 4:24).

-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라  
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전합니다 (롬 4:25). '내  
어줌이 되고'의 원뜻은 법정에서 '죄값을 대신 치  
르도록 피고의 몸을 넘겨주다'라는 의미의 <파라  
디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삶의 모든 잘  
못과 허물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  
통 속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롬 4: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  
속은 폐하여졌느니라

[롬 4:16] 그러므로 후사  
가 되는 이 일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  
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  
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  
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  
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  
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  
의 조상이라

[롬 4:24] 의로 여기심  
을 받을 우리도 위함  
이니 곧 우리 주 예수  
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  
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롬 4: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 (2)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무덤을 이기신 주님

- 또한 우리를 온전히 용서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어나셨느니라” 위대한 결론을 꺼내놓으십니다 (롬 4:25).
- ‘살어나셨느니라’<에게이로>는 주님이 다시 생명을 얻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값이 깨끗이 치러졌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품을 때, 우리 마음과 가정을 짓누르던 모든 불안과 패배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 3. 삶의 적용과 고백: 답답한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라

### 가. 눈앞의 막막함을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

-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언하십니다 (롬 4:18).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답답

[롬 4: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어나셨느니라

[롬 4: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형편이나 자녀들의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우리 가정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다"고 고백할 때 부활의 생명력이 역사하여 지치고 메마른 우리 가정이 풍성하게 회복됩니다.

#### 나. 지난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 우리는 내 노력으로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굳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롬 4:4).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삶의 중심을 단단히 두십시오 (롬 4:24).
-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가정과 자녀들의 삶 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기조마아>.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어두운 그늘은 걷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참된 평안과 축복이 대대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롬 4: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롬 4: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스스로 돌아보기: 나의 영적 상태 점검]

- 내 행위나 조건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너그럽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나요? (롬 4:5)
- 가정과 삶의 상황이 아브라함의 백 세 때처럼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나요? (롬 4:19)
- 주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덮어주셨음을 진심으로 믿나요? (롬 4:7)

### [오늘의 큰소리 선포]

- "우리 가정을 짓누르던 모든 낙심과 어두운 생각은 사라졌고, 지난날의 모든 잘못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히 용서받았다!" (롬 4:7)
- "현실이 막막하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신뢰한다!" (롬 4:17)
-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려고 부활하셨으니, 우리 가정 안에 하늘의 참된 소망과

[롬 4:5] 일을 아니할찌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롬 4:19] 저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롬 4:7]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롬 4:7]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롬 4:17]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의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롬 4:25] 예수는 우리 범 죄함을 위하여 내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평안이 날마다 넘쳐날지어다!” (롬 4:25)

### [파수꾼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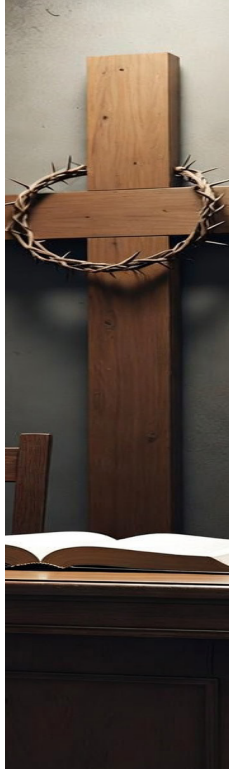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앞의 어려운 형편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원망하던 연약한 마음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만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습니다 (롬 4:3). 우리 삶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막막해 보일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합니다 (롬 4:17). 우리의 잘못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우리 가정의 든든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롬 4:25). 우리의 허물을 다시는 묻지 않으시는 풍성한 자비에 감사드리오니,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물러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참된 축복과 평안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4: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되었느니라

[롬 4:17]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의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롬 4: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 제 5 장

/

# 아담의 저주 파기

## 제5장 아담의 저주 파기

### 도입내용

삶에서 반복되는 깊은 고통과 답답한 어려움은 그저 우연히 겪는 일  
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인류에게 남긴 죄와 죽음의 무거운 짐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문제  
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첫 사람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덮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전합니다. 우리가 아  
담의 연약함 속에서 짊어졌던 죄책감과 절망의 굴레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사랑과 은혜 앞에서 온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의 중심을 과거의 무기력함에 두지 않고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  
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불안과 절망을 이겨내고 생명과 참된 평안  
을 누리는 삶이 시작됩니다 (롬 5:17).

### 1. 두 사람의 대표성과 죽음의 지배를 이기신 은혜

#### 가.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죄와 죽음의 지배

##### (1) 인류 가운데 번져간 죄의 통로

- 바울은 인류의 죄와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어 퍼져

[롬 5:17] 한 사람의 범  
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  
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  
릇 하리로다

나갔는지 그 통로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롬 5:12).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 여기서 '말미암아'의 원뜻은 '어떤 통로나 길을 거쳐 흘러가다'라는 의미의 <디아>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 한 사람이 죄의 문을 열었을 때, 그 통로를 통해 죄와 고통,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온 인류의 삶 속에 그대로 흘러들어왔습니다.

## (2) 인생을 억누르며 군림하던 죽음의 권세

- 아담의 범죄 이후 죽음은 온 인류 위에서 피할 수 없는 지배자로 군림해 왔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말씀하십니다 (롬 5:14).

[롬 5: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 '왕노릇 하였나니'의 원뜻은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며 통치하다'라는 뜻의 <바실류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삶의 고질적인 불안과 한계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 삶

을 짓눌러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신음하던 처지였습니다.

##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넘치는 은혜와 생명의 역전

### (1) 아담의 실패를 뛰어넘는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

- 그러나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의 실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풍성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역사 속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롬 5:15).
- ‘은혜’<카리스>와 ‘선물’<도레아>은 우리의 부족한 조건이나 깊은 허물을 온전히 덮어주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입니다. 아담의 죄는 온 인류를 죄인의 자리에 머물게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고 우리를 온전한 용서와 의로움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롬 5:16).

[롬 5:15]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롬 5:16]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 (2)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된 권세

- 바울은 우리 삶의 처지가 무기력한 패배에서 참된 승리로 바뀌는 놀라운 비밀을 전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선포하십니다 (롬 5:17).
- 죽음이 인생을 짓누르던 옛 질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고, '생명 안에서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 <바실류오 엔 조에>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 2. 화해를 이루신 사랑과 죄를 덮는 은혜의 바다

### 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먼저 확증해 주신 사랑

#### (1) 자격이 없을 때 먼저 베풀어주신 사랑

-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선한 행위나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롬 5:8).

-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기도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그 보혈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 장차 마주할 심판과 두려움에서 건짐받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롬 5:9).

## (2) 막힌 담을 허물고 온전한 평화를 이루신 은혜

-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선언하십니다 (롬 5:10).
- '화목되었은즉'의 원뜻은 '관계의 간격을 없애고 평화를 이루다', '막힌 담을 헐어 온전히 하나 되게 하다'라는 뜻의 <카탈랏소>입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롬 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롬 5:11]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안에서 날  
마다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롬  
5:11).

## 나. 우리의 허물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임하는 하나님 의 은혜

### (1) 내면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의 거울

-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선  
포하십니다 (롬 5:20).
- '범죄를 더하게'의 원뜻은 숨겨져 있던 죄의 본성과  
연약함이 말씀의 기준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드러나는 상태'를 가리키는 <플레오나조>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비칠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큰  
한계와 죄의 짐을 안고 살아왔는지가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 (2)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는 은혜의 풍성함

-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허물이 드러난 자리마다 하  
나님의 은혜가 더욱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임  
한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더욱 넘쳤나니'의 원

[롬 5:20]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  
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뜻은 '어떤 기준으로도 잴 수 없을 만큼 한없이 흘러넘치는 상태'를 뜻하는 <히페르페리스세우오>입니다. 지난날의 잘못과 방향이 아무리 깊었을지라도, 십자가 은혜가 임하면 모든 죄책감을 깨끗이 씻어내고 생명과 평안이 다스리는 복된 삶으로 변화됩니다(롬 5:21).

[롬 5: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 3. 삶의 적용과 고백: 절망의 자리를 벗어나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라

#### 가. 내 삶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전환

-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의 원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롬 5:19).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환경에 얽매어 "내 삶은 원래 이렇다"고 체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 우리 삶의 중심을 실패의 옛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옮겨가십시오. 내 삶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할 때, 삶을 얽매던 무기력과 절망감은 온전히 걷히게 됩니다.

[롬 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 나. 생명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확신

- 풍성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라" 하신 약속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롬 5:17).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평안과 소망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을 짓누르던 과거의 시간은 십자가 은혜 앞에서 끝났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롬 5:21).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 [스스로 돌아보기: 나의 영적 상태 점검]

- 내 삶이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실패감에 얽매어 있다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롬 5:12)
- 내가 아직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카탈랏소> 진심으로 믿나요? (롬 5:10)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롬 5: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 나의 허물과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훨씬 더 크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히페르페리스 세우오> 굳게 신뢰하나요? (롬 5:20)

### [오늘의 믿음 고백]

- "옛 사람의 연약함에 묶여 있던 모든 두려움과 절망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롬 5:12)
- "가난과 질병이 내 인생에 대장 노릇 하던 모든 어둠의 기류는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할지어다!" (롬 5:17)
- "우리 집안의 죄가 깊었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압도적인 홍수처럼 쏟아져 명문 가문으로 완벽하게 바뀌었도다!" (롬 5:20)

### [파수꾼의 기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옛 삶의 절망과 불안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 사랑으로 건져내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롬 5:12, 롬 5:19). 우리가 아직 자격 없고 연약할 때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품

[롬 5:20]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롬 5:20]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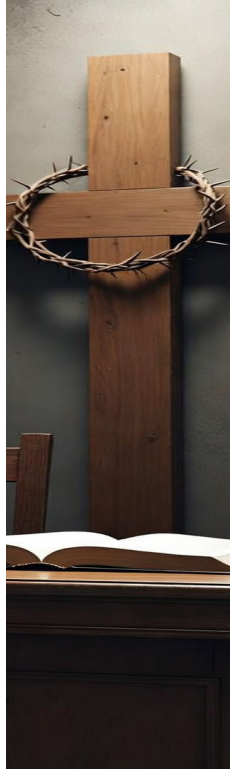
어주셨음을 기억하며 (롬 5:8),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지난날의 허물과 아픔이 아무리 깊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부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롬 5:20). 이제 우리 가정에 두려움과 불안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생명과 평안이 다스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20]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 제 6 장

/

# 죄의 법과의 합법적 이혼

## 제6장 죄의 법과의 합법적 이혼

### 도입내용

오랜 습관이나 특하면 터지는 분노, 삶을 짓누르는 고질적인 문제를 끊어보려고 결심하고 애써도 왜 자꾸 제자리로 돌아올까요? 마음 한구석에서 “너는 예전에도 그랬잖아”라며 옛 실수와 상처를 들추어 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는 어떤 빚도 청구할 수 없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우리의 부끄러운 옛 모습도 무덤 속에 완전히 묻혀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연약함을 이겨내려던 조급함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얹매고 괴롭히던 옛 굴레와는 완전히 결별했음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모든 정죄감과 불안은 사라지고 참된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롬 6:4, 롬 7:4).

### 1. 옛사람의 죽음과 죄의 지배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 가. 내 결심의 한계를 넘어선 세례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 (1) 예수님과 함께 묻힌 옛사람의 장례식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 우리가 죄책감과 옛 습관에 다시 넘어지는 이유는, 여전히 옛 성품이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불안을 이겨내는 세례의 참된 의미를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롬 6:3-4).

[롬 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롬 6:3-4]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 '장사되었나니'의 원뜻은 '무덤 속에 함께 묻혀 완전히 매장되다'라는 의미의 <순타프토마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우리의 고질적인 모난 성격과 연약함, 죄에 얽매어 살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와 무덤 속에 묻혔습니다. 이미 장례를 치르고 흙 속에 묻힌 존재가 더 이상 이전 주인의 명령에 반응할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죄의 유혹에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 (2) 죄의 지배력을 완전히 무력화한 십자가의 능력

-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비결은 매일 혼자 힘으로 버티며 애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옛사람의 죽음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명백히 선포하십니다 (롬 6:6-7).

[롬 6:6-7]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 '멸하여'의 원뜻은 잠시 멈춘 것이 아니라 '완전히 힘을 잃게 하다', '기능을 없애 무효로 만들다'라는 뜻의 <카타르게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우리를 묶어매고 휘두르던 죄의 영향력은 법적으로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 나.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서 맺는 참된 열매

### (1) 얽매었던 옛 법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길

- 바울은 당시의 결혼 관계 비유를 들어, 우리가 어떻게 율법과 죄의 굴레에서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짚어줍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말씀하십니다 (롬 7:2).

[롬 7:2]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며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넣던 율법과 죄의 요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감당하심으로써 마침내 그 힘을 다했습니다. 이전의 관계가 끝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옛 속박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 (2)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는 풍성한 삶의 열매

- 우리를 옴아매던 옛 법이 끝났으므로,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복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구속사의 결론을 선포하십니다(롬 7:4).
- '열매를 맺게'의 원뜻은 풍성한 결실을 가져온다는 의미의 <카르포포레오>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 더 이상 낙심과 실패의 쓴맛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 감사의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삶으로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뜻합니다.

[롬 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 2. 죄에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삶

### 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로 인정하는 믿음

#### (1)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온전한 확신

- 바울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고 붙잡아야 할 믿음의 관점을 가르쳐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선포하십니다 (롬 6:11).
- '여길지어다'의 원뜻은 장부에 명확하게 기록한다는 의미의 <로기조마아>입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습관이나 연약함이 다시 마음을 흔들며 죄책감을 줄 때, 우리는 "나의 옛 모습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네크로스>!"라고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 자신을 완전히 죽은 자로 여길 때, 유혹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롬 6: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 (2) 내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도구로 드리는 헌신

-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우리의 삶을 헛

된 일에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롬 6:13).

[롬 6: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롬 6:14]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 ‘병기’의 원뜻은 군인이 들고 있는 ‘도구와 장비’를 가리키는 <호플론>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일상의 모든 시간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답게 <조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드려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신 약속이 삶의 실체가 됩니다 (롬 6:14).

## 나. 내 힘의 한계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과 참된 구원의 은혜

### (1) 내면의 갈등과 연약함 앞에서 마주하는 고백

- 바울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선한 소원과 옛 육신의 연약함이 부딪치며 겪는 솔직한 고뇌를 토로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롬 7:23-24).

- ‘곤고한’의 원뜻은 ‘지치고 짓눌려 몹시 비참한 상태’를 뜻하는 <탈라이포로스>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 애쓸 때, 사람은 결국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앞에 깊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 (2)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감사의 승리

- 그러나 바울은 이 깊은 한탄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어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선언하십니다 (롬 7:25).
- 내 힘으로는 이 연약한 몸의 한계를 이겨낼 수 없기에,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죄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복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엘레오스>를 누리게 됩니다.

[롬 7:23-24]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 3. 삶의 적용과 고백: 십자가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도구로 살아가라

#### 가. 내 고집을 내려놓고 누리는 십자가의 참된 평안

-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신 분명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롬 6:23). 우리는 내 노력이나 결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던 모든 조급함과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롬 6:4).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맡길 때,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염려와 답답함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삶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롬 6:23]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 나. 마음의 문을 지키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 성도는 옛 삶의 죄책감과 두려움이 마음을 파고들 때 단호하게 믿음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롬 7:2). "나를 억누르던 옛 멍에는 이미 끝났고, 나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롬 7:4).

[롬 7:2]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 우리의 입술과 삶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드릴 때 (롬 6:13), 우리 가정은 과거의 아픔과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가정으로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 [스스로 돌아보기: 나의 영적 상태 점검]

- 과거의 나쁜 습관이나 실패감이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롬 6:6)
- 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완전히 묻혀 <순타프토마이> 이전의 삶이 끝났음을 확신하나요? (롬 6:4)
- 나를 얹매던 율법과 죄의 속박은 끝났으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참된 평안과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사람임을 믿나요? (롬 7:4)

### [오늘의 큰소리 선포]

- "우리 집안에 대물림되던 모든 어둠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어 완벽하게 끝났다!"

[롬 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어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롬 6: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롬 6: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롬 6:4)

- "나를 짓누르고 괴롭히던 모든 두려움과 정죄감은 십자가 은혜 앞에서 온전히 사라졌음을 선포한 대!" (롬 7:2)
- "나는 죄에게 종노릇 할 수 없는 자니, 내 온몸과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무기대!" (롬 6:13)

### [파수꾼의 기도]

우리를 온전한 자유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의지만으로 연약함을 이겨내려 애쓰며 좌절하던 모든 한계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주신 완전한 승리를 바라봅니다 (롬 6:4). 우리 삶을 짓누르던 불안과 두려움, 옛 상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롬 6:6). 우리를 옴아매던 정죄의 법은 끝났사오니, 오직 참된 생명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롬 7:4). 우리 삶과 가정에 더 이상 절망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드리오니, 오직 주님의 생명과 평강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대대로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

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롬 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어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롬 7:2]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롬 6: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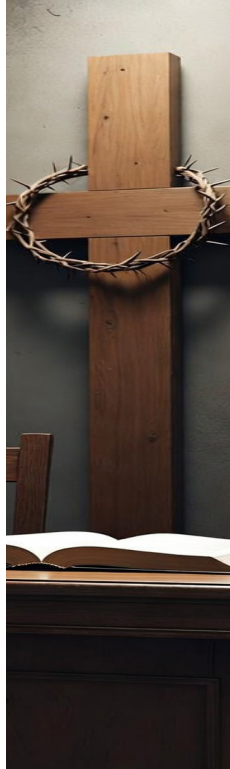
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게 하려 함이니라

[롬 6:6] 우리가 알거니  
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  
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  
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  
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  
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  
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  
다 하심을 얻었음이니  
라

[롬 7:4] 그러므로 내 형  
제들아 너희도 그리스  
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  
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  
이라





## 제 7 장

/

# 생명의 성령의 법

## 제7장 생명의 성령의 법

### 도입내용

로마서 8장은 앞서 7장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연약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던 절망을 말끔히 씻어주는 하나님의 온전한 해방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는 어떤 정죄도 내리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용서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죄와 불안의 굴레는 끝이 났으며,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의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삶을 온전히 새롭게 바꿉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인도하심에 마음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 삶과 가정은 절망을 넘어 참된 은혜와 평강의 길로 든든히 걸어가게 됩니다 (롬 8:1-2).

### 1. 정죄로부터의 해방과 성령의 새로운 원리

#### 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과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은혜

##### (1) 모든 죄책감과 정죄를 무효로 만드시는 선언

##### - 바울은 영적 세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포하며 로

[롬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마서의 핵심적인 진리를 밝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선포하기 때문입니다(롬 8:1).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 ‘죄함’의 원뜻은 단순한 비난이나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죄책감이 아니라, 법정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되어 형벌을 받도록 내려진 ‘사형 판결문’을 가리키는 <카타크리마>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지난날의 부끄러운 허물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정죄의 판결 자체를 완전히 취소하시고 무효로 만드셨음을 분명히 짚어줍니다.

## (2)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

-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말씀하십니다(롬 8:3).
- ‘죄를 정하사’의 원뜻은 죄의 짓값을 물어 ‘죄 자체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다’라는 뜻의 <카테크리넨>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결심으로는 삶의 뿌리 깊은 한계와 고질적인 모난 성격을 온전히

[롬 8:3]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바꿀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롬 8:4).

[롬 8:4]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 나. 죄와 사망의 굴레를 깨뜨리신 생명의 성령의 원리

### (1)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의 새로운 은혜

- 바울은 우리 삶을 새롭게 이끄시는 생명의 원리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롬 8:2).
- 여기서 '법'의 원뜻은 단순한 규범을 넘어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지배 원리와 질서'를 가리키는 <노모스>입니다.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법칙을 비행기가 추진력과 양력의 원리로 가볍게 뚫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를 낙심과 불안, 실패의 자리로 끊임없이 끌어내리던 옛 죄와 사망의 지배력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생명력이 단번에 깨뜨리고 참된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 (2) 성령께 마음을 고정하고 누리는 생명과 평안

- 성도의 삶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선포하십시오 (롬 8:6-7).

[롬 8:6-7]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 '생각'의 원뜻은 잠시 스치는 잡념이 아니라, '마음의 시선과 사고방식이 한곳으로 굳건히 향해 있는 상태'를 뜻하는 <프로네마>입니다.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낙심하며 체념하는 생각은 마음을 메마르게 하지만, 마음의 시선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맞추는 영의 생각은 우리 가정과 삶을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 2.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와 끊임 없는 사랑

### 가. 두려움을 물리치는 자녀의 특권

#### (1) 무서워하는 종의 마음을 물리치는 자녀의 은혜

-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선포하십시오 (롬 8:15).

[롬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 과거의 연약함이나 상처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불어넣어 무력한 상태로 주저앉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복된 '양자의 영' <프뉴마 휘오데시아스> 을 부어주셨습니다.

## (2) 옛 신분을 벗고 참된 기업을 누리는 자녀의 은총

-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아바 아버지' <아바 호 파테르>라는 고백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누군가가 집안의 양자로 입양되면, 그 사람이 이전에 짊어지고 있던 모든 빛과 옛 신분의 굴레는 온전히 지워졌으며, 오직 새로운 아버지를 통해 가문의 유업을 이어받는 온전한 상속자의 권리를 얻었습니다.
-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롬 8:16).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기업을 함께 누려갈 복된 자녀의 권세를 우리 손에 쥐여 주십니다 (롬 8:17).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롬 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 나. 모든 아픔을 바꾸어 선을 이루시는 섭리와 영원한

## 사랑

### (1) 삶의 모든 조각을 모아 선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위대한 구속사의 신비를 선포하십니다 (롬 8:28).
- '합력하여'의 원뜻은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 심지어 과거의 눈물겨운 상처와 실패의 조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한데 모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빚어가시는 섭리를 가리키는 <원예르게오>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 삶의 어떤 아픔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됩니다.

### (2)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굳건한 사랑

- 바울은 이 위대한 고백을 마무리하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확신을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말씀하시기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문입니다 (롬 8:33-34).

-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선언하십니다 (롬 8:38-39). 우리를 온전히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아가페>은,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나 두려움도 결코 흔들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반석입니다.

### 3. 삶의 적용과 고백: 낙심을 이겨내고 자녀의 참된 권세로 살아가라

#### 가. 낙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

- 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완전히 풀어주셨다는 선언은 오늘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롬 8:2). 우리는 과거의 무력감이나 염려가 마음을 찾아올 때마다, 낙심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롬 8:6).

- 2) 염려와 불안에 얽매이던 옛 생각을 내려놓고, 우

[롬 8:33-34]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뿐 아니라 다시 살어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삶의 중심을 온전히 두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머물 때, 마음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는 물러가고 가정과 일상에 생명과 평안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됩니다.

## 나. 흔들리지 않는 자녀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걸어나는 길

- 1)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정죄하겠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롬 8:33). 삶의 무게로 인해 마음이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모신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롬 8:15).
- 2)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에는 정죄와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대대로 풍성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롬 8:33]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롬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 [스스로 돌아보기: 나의 영적 상태 점검]

- 내 삶에 찾아오는 옛 죄책감이나 마음의 무거운 정죄감<카타크리마>에 휘둘리지 않고,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를 누리고 있나요? (롬 8:1)
- 우리를 낙심으로 끌어내리던 옛 생각을 이겨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는 참된 자유를 날마다 누리고 있나요? (롬 8:2)
- 삶의 쓰라린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손에르게오> 굳게 신뢰하나요? (롬 8:28)

### [오늘의 믿음 고백]

-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참된 용서와 자유가 임하였다!" (롬 8:1)
- "우리 삶을 짓누르던 모든 불안과 낙심의 굴레는 끝났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삶을 인도한다!" (롬 8:2)
- "나를 향한 모든 정죄와 송사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며,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롬 8:33, 롬 8:39)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33]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롬 8: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 [파수꾼의 기도]

우리를 완전한 자유로 이끄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 죄책감에 얽매어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정죄감<카타크리마>을 십자가 사랑으로 말끔히 씻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롬 8:1). 우리 삶을 낙심과 무기력으로 끌어내리던 옛 생각의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삶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롬 8:2). 두려워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롬 8:15),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지나온 삶의 눈물과 아픔의 조각들까지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복된 열매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롬 8:28),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을 수없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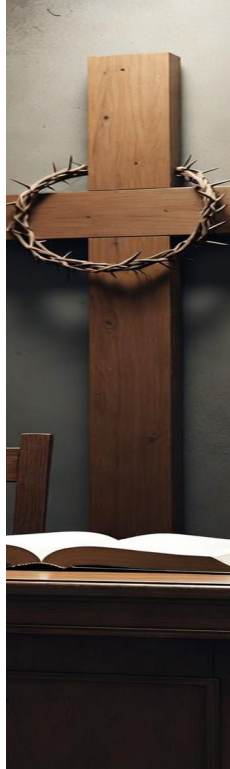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제 8 장

/

# 토기장과와 진흙같은 나

## 제8장 토기장이와 진흙같은 나

### 도입내용

답답한 현실과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형편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왜 내 삶은 이토록 힘들까?" 하며 원망 섞인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통해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토기장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흙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깊고 넓은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회복은 내 생각과 조급한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드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롬 9:20-21).

### 1. 토기장이의 주권과 돌감람나무를 접붙이신 은혜

#### 가. 토기장이의 주권과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

##### (1) 하나님의 뜻에 불평하며 따지는 인간의 한계

-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과 주권 앞에 불평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짚어줍니다. "이 사람이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

[롬 9:20-21] 이 사람이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니라

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  
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롬  
9:20).

[롬 9:20] 이 사람이 네  
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  
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  
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  
들었느냐 말하겠느냐

- ‘힐문하느냐’의 원뜻은 사법적인 자리에서 ‘판결에  
조목조목 따지며 맞서 대들다’라는 의미의 <안티  
포크리노마이>입니다. 삶의 어려운 환경을 탓하  
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라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 (2) 진흙 한 덩이의 쓰임을 정하시는 토기장이

- 바울은 토기장이의 일상을 들어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  
들 권한이 없느니라” 선언하십니다 (롬 9:21).
- ‘토기장이’의 원뜻은 흙을 빚어 그릇의 용도를 온전  
히 결정하는 ‘절대 주권자’를 가리키는 <케라메우  
스>입니다. 진흙은 자신의 모양이나 쓰임새를 두  
고 스스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  
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아픔과 상처를 딛  
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귀한 그릇으로 빚  
여지게 됩니다.

[롬 9:21] 토기장이가 진  
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  
히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니라

## 나. 돌감람나무를 접붙이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 (1) 거친 나무에 부어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진액

- 바울은 올리브나무 접붙이기의 원리를 들어, 자격 없는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된 놀라운 은혜를 설명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롬 11:17).

[롬 11:17]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 여기서 '돌감람나무'의 원뜻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메마른 들올리브나무를 뜻하는 <아그리에 라이오스>입니다. 본래 열매 맺지 못하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엔겐트리조>된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거저 공급받게 하신 온전한 은혜입니다.

### (2) 복음의 배에 선원을 가득 채우시는 비밀

-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

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구속사의 거대한 타임라인을 보여줍니다 (롬 11:25).

- ‘충만한 수’의 원뜻은 ‘배에 사람과 짐이 빠짐없이 가득 차서 온전히 출발할 준비를 마친 상태’를 뜻하는 <플레로마>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에 부르시는 크고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이웃과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넓은 믿음의 시야를 갖게 됩니다.

## 2. 은혜로 남겨두신 자들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 가.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 (1)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명의 믿음

- 바울은 엘리야 시대의 역사를 들어, 아무리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선포하십니다 (롬 11:4-5).

[롬 11: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롬 11:4-5]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 '남은 자'의 원뜻은 '거센 불길 속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려 싹을 틔우는 그루터기'를 가리키는 <휘포 레이마>입니다. 세상의 혼란과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어 믿음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사람으로 남겨두셨습니다.

## (2) 오직 값없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의 선물

-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명시하십니다 (롬 11:6).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확신을 품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롬 11: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 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 (1)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

-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묵상하며 깊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의 부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

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선언하 시기 때문입니다 (롬 11:33).

- ‘지혜’의 원어 <소피아>와 ‘지식’의 원어 <그노시스>는 사람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를 뜻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삶의 눈물과 광야 같은 시간들조차,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 안에서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 (2)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사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롬 11:36).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마지막 완성이 오직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염려와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 3. 삶의 적용과 고백: 원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으라

### 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롬 11:33]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의 부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롬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 고집을 겸손히 내려 놓아야 합니다 (롬 9:21). "왜 내 삶은 이런가?"라며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단호히 정리하십시오 (롬 9:20).
-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 삶의 깨어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해 은혜와 평강을 담아내는 귀한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됩니다.

[롬 9: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롬 9:20]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었느냐 말하겠느냐

#### 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

- 돌감람나무 같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잇대어져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고 있음을 굳게 확신하십시오 (롬 11:17). 지나간 상처나 연약함에 머물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과 소망을 날마다 기도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 우리는 가정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 <휘포레이마>임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롬 11:5). 이 믿음으로 굳게 설 때, 가정에 드리웠던 무기력과 답답함은 걷히고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풍성하게 흘러가

[롬 11:17]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롬 11:5]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게 됩니다.

### [스스로 돌아보기: 나의 영적 상태 점검]

- 어려운 환경 앞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나요? (롬 9:20)
- 내 힘과 옛 습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참감람나무 되신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에 온전히 잇대어져 살아가고 있나요? (롬 11:17)
- 삶의 여러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믿음의 '남은 자'로 붙들어 주셨음을 확신 하나요? (롬 11:5)

### [오늘의 큰소리 선포]

- "내 인생의 완벽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 모든 인간적 고집은 완전히 파쇄되었다!" (롬 9:21)
- "나는 참감람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으니, 내 안에는 오직 보좌의 거룩한 진액만 흐른다!" (롬 11:17)

[롬 9:20]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 게 어찌 나를 이같이만 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롬 11:17] 또한 가지 열매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롬 11:5]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롬 9: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롬 11:17] 또한 가지 열매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 "나는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를 차단하고 거룩한 기류를 전수할 은혜의 '남은 자' <휘포레이마>임을 선포한다!" (롬 11:5)

## [파수꾼의 기도]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형편만을 바라보며 얇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원망하고 답답해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롬 9:20). 제 고집과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를 가장 귀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롬 9:21). 열매 맺지 못하던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롬 11:17).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은혜로 우리를 택하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남은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롬 11:5),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가정을 든든히 지키게 하옵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감을 고백하오니 (롬 11:36),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평강이 풍성히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11:5] 그런즉 이와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롬 9:20]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었느냐 말하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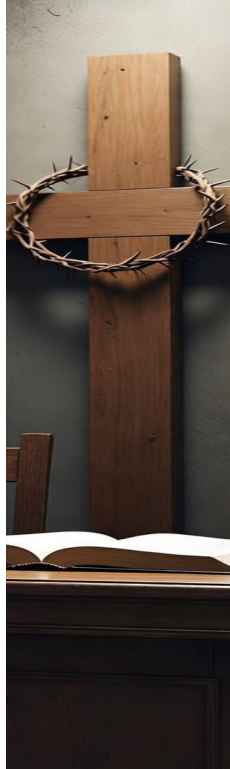
[롬 9: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롬 11:17] 또한 가지 열매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느니라

[롬 11:5] 그런즉 이와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롬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 제 9 장

/

# 삶의 영적 리모델링

## 제9장 삶의 영적 리모델링

### 도입내용

로마서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은혜를 '매일의 일상' 속으로 가져와 진실한 삶의 변화로 이어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믿음은 마음속 생각이나 머릿속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세상의 헛된 유혹과 타락한 문화를 분별하며, 성도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당부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둘 때, 비로소 오랜 나쁜 습관과 어두운 생각들이 정리되고 일상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롬 12:1-2).

### 1.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와 빛의 옷

#### 가. 삶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세상 풍조의 구별

##### (1) 살아있는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 바울은 로마서의 행동 실천편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롬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선 포하기 때문입니다(롬 12:1).

- ‘산 제사’의 원뜻은 구약 제사처럼 짐승을 잡아 피 흘려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일상을 깨끗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헌신’을 뜻하는 <티시아 조사>입니다. ‘영적 예배’의 원어 <로기켄 라트레아>는 단순한 감정적 흥분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하고 분별력 있는 삶의 헌신’을 가리킵니다.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가꾸어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 (2) 세상의 틀을 거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

- 바울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롬 12:2).

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본받지 말고'의 원뜻은 '주변의 외적인 틀에 맞추어 똑같이 따라 찍어내다'라는 의미의 <시스케마티조>입니다. 세상은 이기심과 헛된 욕망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의 삶을 그와 똑같이 빚어내려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멈추고,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메타모르포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삶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 나. 사회 질서를 대하는 바른 태도와 빛의 갑옷

### (1)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의 존중

-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혼란스러운 시대 속 성도들에게 국가와 질서를 대하는 바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롬 13:1).
- '권세'의 원뜻은 합법적으로 부여된 다스림의 권위를 뜻하는 <엑수시아>입니다. 세상의 제도와 질서 배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존중하며 평안과 정의를 위해 기도

[롬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성숙한 태도입니다 (롬 13:2).

## (2)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으로 덧입는 무장

- 바울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깨어있음을 촉구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주를 입자" 선포하십니다 (롬 13:12).
- '입자'의 원뜻은 '옷 속에 몸을 넣어 온전히 감싸다'라는 의미의 <엔듀오>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다툼, 시기심과 같은 부끄러운 어둠의 행실을 단호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롬 13:13).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롬 13:14), 우리 삶과 가정을 어지럽히던 모든 무질서와 연약함은 물러가게 됩니다.

[롬 13: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롬 13: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주를 입자

[롬 13: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롬 13: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 2. 지체의 아름다운 조화와 성령 안의 참된 하나님 나라

### 가.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조화로운 섬김

#### (1) 교만을 내려놓고 지혜롭게 분별하는 태도

-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섬김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에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선포하십니다(롬 12:3).

[롬 12: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에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 '믿음의 분량'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에 지혜롭게 나누어주신 '영적인 척도와 몫'을 뜻하는 <메트론 피스테오스>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하거나 자신의 몫을 넘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겸손히 분수를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 (2) 서로를 배려하며 조화를 이루는 은사의 활용

-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의 맥을 명시하십니다(롬 12:6).

[롬 12: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 '분수대로'의 원뜻은 '올바른 균형과 조화'를 의미하는 <아날로기아>입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아 움직이듯 (롬 12:4),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역할과 은사를 바르게 알

[롬 12: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고 조화롭게 연합할 때, 공동체와 가정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 나. 외적인 형식을 뛰어넘는 참된 하나님 나라

### (1) 헛된 비판과 갈등을 내려놓는 성숙함

- 바울은 음식에 대한 규례나 특별한 날을 지키는 외적인 문제로 성도 간에 서로를 판단하고 다투던 상황을 경계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권면하십니다 (롬 14:3).
-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가정과 공동체의 평안을 깨뜨리는 연약함입니다.

### (2)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 바울은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본질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십니다 (롬 14:17).

[롬 14: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롬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 하나님 나라<바실레아>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누리는 거룩한 영역입니다. 먹고 마시는 세상 조건에 매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마음에 품을 때, 삶의 불안과 갈등은 물러가고 참된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 3. 삶의 적용과 고백: 세상 풍조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 가. 내 몸을 제단에 바치는 실제 생활 예배의 접지

-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신 권면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가꾸어가야 합니다 (롬 12:1). 세상의 유행과 헛된 욕심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던 옛 습관을 단호히 내려놓으십시오 (롬 12:2).
- 이기적인 욕심과 헛된 생활 습관을 내려놓고, 우리의 말과 행동,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처소가 될 때, 삶에 얽혀 있던 모든 무기력과 불안의 고리는 온전히 끊어집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나. 빛의 사람으로堂堂하게 살아가는 신앙

-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주를 입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십시오 (롬 13:12). 육신의 정욕을 따르던 게으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마음을 든든히 감싸야 합니다 (롬 13:14).
-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조건이나 물질의 유무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확신하십시오 (롬 14:17).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둘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 [스스로 돌아보기: 나의 영적 상태 점검]

- 내 삶의 모습을 여전히 세상의 헛된 기준과 유행<스키마>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롬 12:2)
- 내 가문과 삶의 안방에 시기와 다툼, 방탕과 음란이라는 어둠의 누더기 옷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롬 13: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주를 입자

[롬 13: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있지는 않나요? (롬 13:13)

- 내 심령과 가정의 기류가 먹고 마시는 세상 문제를 넘어 오직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있나요? (롬 14:17)

### [오늘의 큰소리 선포]

- "세상의 헛된 풍조와 이기적인 삶의 틀<스키마>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리라!" (롬 12:2)
- "가문 대대로 내려온 음란과 시기의 어둠의 옷은 벗겨졌고,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도다!" (롬 13:14)
- "우리 가정은 먹고 마시는 결핍의 노예가 아니요, 오직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일지어 대!" (롬 14:17)

### [파수꾼의 기도]

우리의 온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일상의 삶을 세상의 헛된 유행과 욕망에 내어주며 살았던 연약함을 겸손히 회개합

[롬 13: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롬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3: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니다 (롬 12:2). 나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던 게으른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롬 12:1). 어두운 행실과 시기, 분쟁의 마음을 단호히 벗어버리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으로 우리 마음을 온전히 감싸게 하옵소서 (롬 13:12, 롬 13:14). 사소한 일로 다투며 마음을 상하게 했던 연약함을 내려놓아오니, 우리 가정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롬 14:17).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 삶으로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신실하고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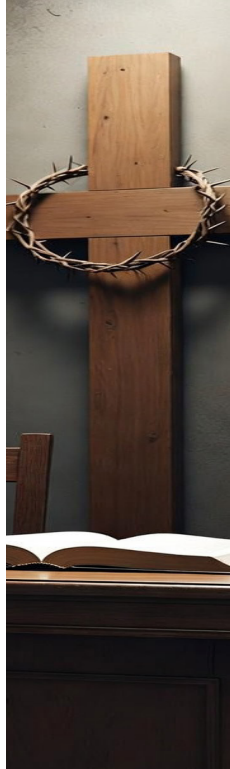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3: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주를 입자

[롬 13: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4:17] 하나님의 나라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 제 10 장

/

# 하나님의 명문 가문

## 제10장 하나님의 명문 가문

### 도입내용

로마서라는 크고 놀라운 복음의 여정은 바울 한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15장과 16장을 마무리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따뜻하게 부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서를 전했던 뵈뵈부터 바울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섬김은 복음이 뻗어나가는 든든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의 열매는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데 머물지 않고, 일상과 가정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내어드려 신실한 동역자의 삶으로 함께 서 가는 것입니다(롬 16:1-4).

### 1. 복음 전파의 열정과 신실한 동역자들의 헌신

#### 가. 복음으로 채워간 여정과 땅끝을 향한 비전

#### (1)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전해진 복음의 발걸음

[롬 16:1-4]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 희에게 천거하노니 너 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찌니 이는 그가

-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자신이 걸어온 복음 전파의 여정을 진솔하게 나눕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롬 15:19).
- '편만하게 전하였노라'의 원뜻은 단순히 소식을 알렸다는 의미를 넘어, '어떤 지역을 복음의 진리로 빈틈없이 가득 채워 온전히 완수하다'라는 뜻의 <플레로오>입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당시 복음이 닿기 어려웠던 일루리곤(지금의 발칸반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묵묵히 복음의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 (2) 더 먼 곳을 향해 나아가는 멈추지 않는 선교의 열정

- 바울은 로마 교회를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 더 먼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선교의 동역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말씀하십니다 (롬 15:23).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너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롬 15:19] 이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으며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롬 15:23]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 '서바냐'(지금의 스페인)는 당시 사람들이 세상의 끝으로 생각했던 '땅끝' <에페케이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남이 이미 닦아놓은 터 위에 머무르지 않고 (롬 15:20),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낯선 땅을 향해 헌신적으로 나아갔던 바울의 열정은, 우리 삶의 시야를 넓혀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귀한 본보기가 됩니다.

[롬 15:20]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 나. 교회의 신실한 일꾼 뵈뵈와 헌신적인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 (1) 묵묵히 소중한 편지를 전달한 뵈뵈 자매

-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시작하며 이 귀한 서신을 로마 교회에 안전하게 전달해 준 소중한 인물을 먼저 소개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전하기 때문입니다 (롬 16:1).
- '일군'의 원뜻은 단순한 심부름을 넘어 교회의 신뢰를 받으며 중요한 직무를 맡아 섬기는 '신실한 섬김이'를 뜻하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몹시 제한적이던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도, 뵈뵈는 위험한 바닷길을 건너 로마서를 안전하게 전달하며 사도와 성도들을 든든하게 돕는

[롬 16: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보호자’<프로스타티스>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롬 16:2).

## (2) 복음 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한 부부

-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위대한 동역의 확실한 팩트를 보여줍니다 (롬 16:3-4).
-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의 원뜻은 ‘위험한 형벌의 자리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줄 만큼 헌신했다’라는 의미의 <트라켈론 휘페테칸>입니다. 브리스가<프리스카>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가정과 삶,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며 복음 사역에 온전히 동역했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헌신은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큰 본이 되었으며, 믿음의 역사 속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롬 16:2]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찌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롬 16:3-4]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 2. 악한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

## 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

### (1) 악한 권세를 온전히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모든 영적 혼란을 물리치시고 참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롬 16:20).
- '상하게 하시리라'의 원뜻은 가벼운 상처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힘을 잃도록 산산이 부수어 무력하게 만들다'라는 뜻의 <신티리보>입니다.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흔들려는 악한 권세는 하나님의 평강 앞에서 완전히 힘을 잃게 됩니다.

### (2) 지체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

-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속히' <엔 타케이> 성도들에게 온전한 평안과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불안과 낙심으로 몰아가려던 모든 혼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미 그 힘을 잃었기에, 성도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삶을 채우게 됩니다.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 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비밀

### (1) 오랜 시간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

-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선언하십니다 (롬 16:25-26).
- ‘감추었다가’의 원뜻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조용히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의미하는 <세시게메누>입니다.

[롬 16: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 (2)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밝히 드러났으며,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롬 16:26).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섭리<미스테리온>가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찌어다 아멘” 찬양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롬 16:27).

[롬 16:26] 이제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롬 16:27]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 3. 삶의 적용과 고백: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며 참된 평안을 누리라

#### 가. 안일함을 벗어나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삶

-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으로 가득 채웠던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내 삶의 좁은 울타리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롬 15:19). 나 자신의 안락함에만 머물러 있던 안일한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으십시오.
- 땅끝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갔던 그 담대한 믿음과 열정을 자녀들에게도 소중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롬 15:23). 우리의 일상과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따뜻한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삶의 모든 막막함과 답답함은 물러가고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 나.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한 동역자로 살아가는 은혜

-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신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평안을 굳게 지키십시오 (롬 16:20). 뵈뵈처럼 신

[롬 15:19]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였노라

[롬 15:23]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였으니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교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참된 동역자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롬 16:1, 롬 16:4).

-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가정과 자녀들에게 대대로 흘러갈 때 (롬 16:25),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날마다 든든하고 복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 [스스로 돌아보기: 나의 영적 상태 점검]

- 복음의 능력을 나 한 사람의 안위 속에 가둔 채, 땅 끝을 향한 하나님의 서바나 선교 비전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요? (롬 15:23)
- 뵈뵈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내 목숨과 재정의 플러그를 기꺼이 바칠 야성이 있나요? (롬 16:4)
-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발아래서 마귀의 뼈를 완전히 박살 내실<쉰트리보>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나요? (롬 16:20)

[롬 16: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롬 16:4]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롬 16: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 신바 되었으며

[롬 15:23]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였으니

[롬 16:4]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오늘의 큰소리 선포]

- "우리 삶을 흔들고 두렵게 하던 모든 악한 생각과 불안은 평강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졌다!" (롬 16:20)
- "나와 내 자녀들의 인생은 땅끝까지 복음의 진액을 채우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선교적 명문 가문이 되었도다!" (롬 15:19)
-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비밀이 오늘 우리 가정과 삶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도다!" (롬 16:25)

## [파수꾼의 기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입고도 나 자신의 안락함에만 머물러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잊고 살았던 영적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롬 15:23). 나 중심의 좁은 시야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으로 세상을 가득 채웠던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본받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롬 15:19). 묵묵히 편지를 전했던 뵈뵈처럼,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브리스길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롬 15:19]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였노라

[롬 16: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 신바되었으며

[롬 15:23]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니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였으니

[롬 15:19]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라와 아굴라처럼 (롬 16:1, 롬 16:4), 우리 가정이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신실한 동역자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을 어지럽히던 모든 불안과 혼란을 발아래 온전히 복종시키시고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롬 16:20). 영원 전부터 예비해 두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물처럼 풍성하게 흐르게 하옵소서.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였노라

[롬 16: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뵤비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롬 16:4]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롬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로마서 영맥풀이

초판 발행 2016. 7. 2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7348-2300(이안나 목사)  
홈 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http://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mailto:inourlove@gmail.com)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